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왕

* 10/18(월) 열왕기하 ④ 13-14장 / 요나 1-4장

분열왕국 1-17장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1장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계승 2장 이스라엘 왕 여호람 3장 엘리사의 기적들 4장 엘리사의 이야기 5장-8:15	유다 왕 여호람 8:16-24 유다 왕 아하시야, 이스라엘 왕 예후 8:25-10장 유다 여왕 아달라 11장 유다 왕 요아스 12장 ▶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13:1-9 · 여로보암의 길 / 17년 통치 ▶ 이스라엘 왕 요아스 13:10-25 · 여로보암의 길 / 16년 통치 · 구원의 화살, 세 번의 승리 · 엘리사의 죽음 ▶ 유다 왕 아마샤 14:1-22 · 선한 왕(산당 예외) / 29년 통치 ▶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14:23-29 · 여로보암의 길 / 41년 통치	유다 왕 아사랴 15:1-7 이스라엘 왕 스가랴 15:8-12 이스라엘 왕 살룸 15:13-16 이스라엘 왕 므나헴 15:17-22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15:23-26 이스라엘 왕 베가 15:27-31 유다 왕 요담 15:32-38 유다 왕 아하스 16장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17장

Before 줄치며 읽기

심판이 아닌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에게 필요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위대한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거닐던 시대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 몰라도 너무 모른다① : 이스라엘 왕 요아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진 않았습시다(13:11).

엘리사는 죽을 병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구원의 화살로 땅을 치라 명합니다. 세 번을 치고 그칩니다.

예언적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아쉬운 순종엔 일부의 회복이 있습니다.

허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합니다(13:19, 25).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가 없는,

패배 후 이방 땅에 잡혀 갈, 미래가 다가옵니다.

선지자와의 접촉,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접촉이 있다면, 죽음은 예상치 못했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13:20-21, 겔 37:1-14).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성서유니온 열왕기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 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선한 왕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다윗과 같은’ 다른 유다 왕을 찾을 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대를 보장 받은 왕조가 다스립니다(10:30).

두 왕국의 관계가 비교적 평온합니다.

• 몰라도 너무 모른다② :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아람이 앓수르의 힘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14:25, 왕상 8:65).”
기회를 틈 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습니다.

그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예후에게 하신 약속이 유효합니다.

유다를 위한 희망이 다윗 안에 있듯, 이스라엘의 희망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13:23).
여호와와의 공화하심입니다. 두 왕국은 하나님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14:24).
하나님께서 ‘타는 목마름으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보내십니다.

• 몰라도 너무 모른다③ :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5:1-18, 사 54:10).

요나는 이 넓은 마음을 꺼렸습니다. 마이 웨이(my way)를 갑니다.
육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기 위해 내려가고, 배에서는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욥 1:3, 5).
그 끝은 바다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방황의 끝에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3일 길을 겨우 하룻길로 끝을 맺습니다(욥 3:3-4).
니느웨에 무슨 일이 생기길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나 모릅니다.
니느웨는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나 1:14).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욥 3:10, 렘 18:7-8, 눅 15:7).

세상 천지에 선지자는 요나 하나인 것처럼, 박영쿨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욥 4:10-11).

주님의 눈에 ‘요나’는요 ‘나’는요.
금쪽같은 내 사랑,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